

새로 발굴된 조선 후기 중국어 학습서 『譯語彙選』에 대하여

김영*

目 录

1. 들어가며
2. 서지사항
3. 내용 구성 및 특징
 - 1) 회화문
 - 2) 속담
 - 3) 어휘
4. 나가며

1. 들어가며

조선 후기에는 사역원에서 간행한 『老乞大』, 『朴通事』, 『華音啓蒙』과 달리 개인의 필요에 의해 제작된 중국어 학습서들이 많았다. 이는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많았고 개인적 교역에서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사역원에서 간행한 역학서들로 중국어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조선 후기 필사본 중국어 학습서들은 17종에 달하는데¹⁾

* 선문대학교 외국어자율전공학부 중국어전공 연구전담부교수

1) 그동안 발굴 소개된 필사본 중국어 학습서는 장서각 소장 『你呢貴姓』을 시작으로 『中華

중국어 회화서류가 대부분이며 중국어 어휘를 모아 놓은 어휘집, 속담·관용구집의 성격을 띠는 자료도 있다.²⁾

최근 중국어 학습서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서명은 『譯語彙選』이며 개인 소장본이다. 표지 제목은 ‘譯語彙選’이지만 본문 내제는 ‘中華正音’으로 제목이 상이하다. 수록 내용은 크게 내제 ‘中華正音’에 해당되는 부분과 『譯語類解補』의 어휘들을 선별하여 그대로 옮겨 적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제1면~제16면까지로 ‘中華正音’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조선후기 중국어 회화서에 많이 사용되었던 서명 ‘中華正音’을 그대로 차용하여 내제로 썼지만 회화문은 많지 않다. 주로 속담과 1~5자 내외의 어휘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기존의 필사본 중국어 회화서에 없는 부분도 있어 특기할 만하다.

본고는 새 자료 『譯語彙選』을 소개하고 내용의 구성과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더불어 다른 중국어 학습서와의 연관성도 살펴 『中華正音』이 가지는 자료적 성격을 조명하고자 한다.

2. 서지사항

『譯語彙選』은 필사본 1책이며 크기는 세로 31.3cm, 가로 21cm이다. 이 책은 본래 광산 김씨 良簡公派의 中派 判軍器監事公派 39世 故 金極中(1912~2003)씨의 구장본으로 현재 후손이 소장하고 있다³⁾. 후손의 傳言에

正音, 『騎着一匹』, 순천대 소장 『中華正音』, 일본 駒澤大學 濯足文庫 소장 『中華正音』, 고려대 소장 『騎着匹』(上下), 일본 東京大學의 阿川文庫 소장 『中華正音』과 小倉文庫 소장 『華音撮要』, 『關話畧抄』, 연세대 열운문고 소장 『中華正音』, 이화여대 소장 『漢談官話』, 숭실대 소장 『中華正音』, 동국대 소장 『華語』,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소장 『學淸』, 『中華正音』(화봉문고 구장본), 『華語抄畧』, 『漢語』 등이다.

2) 조선후기 필사본 중국어 학습서의 내용적 유형 분류는 김아영·박제연의 「洌雲文庫 『中華正音』의 장면·대화 분석 연구」 98~99쪽 참조.

3) 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故 金極中씨의 女婿 김영환님께 지면을 통해 감

의하면 金極中씨의 부친 金容塚(1897~1943), 조부 金陽洙(1862~1914)씨 모두 거주지인 논산 지역에서 서당 훈장을 지냈다고 한다. 또한, 1970년에 작성된 石雲先生追悼碑文에는 金극중씨의 증조부 石雲 金永達(1841~1904)은 성정이 雅靜하고 博學多文하여 문하생이 많았으며 小石 金陽洙는 성정이 강직하고 불의한 것에는 현혹되지 않았으며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친 조선 말기의 隱士로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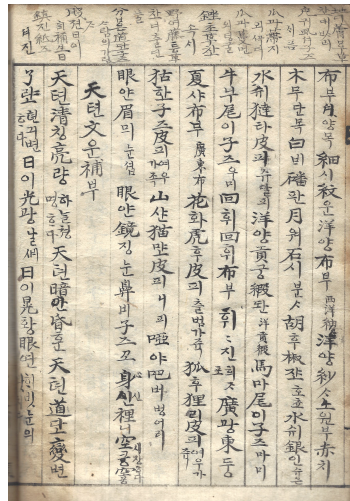
대대로 한학을 공부하고 훈장을 지냈으니 많은 고서적들을 소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본고에서 소개하고 하는 책 이외에 『論語』, 『孟子』, 『詩經』, 『孝經』, 『山林經濟』, 『古賦辭』 등 100여 종의 漢學書를 소장하고 있다.



<그림 1, 2> 『譯語彙選』 표지 및 본문 첫 면

표지가 낡았지만 판독은 가능하다. 표지 좌측에는 큰 글씨로 ‘譯語彙選’, 우측에는 작은 글씨로 ‘中華正音’이라 쓰여 있다.

사드린다. 聘父가 소장했던 자료가 사장되지 않고 연구자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그 가치가 조명되길 바라는 뜻에서 직접 필자와 연락하여 자료를 제공해 주셨다.



〈그림 3〉『譯語彙選』 제16면

전체 60면이며 광곽과 계선을 직접 그려 넣고 필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 면 10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 첫 면에는 ‘中華華正音’이라 적혀 있지만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제1면부터 제16면 제7행까지는 ‘中華正音’ 제목에 부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속담과 상용구가 많으며 2~4자의 어휘들도 함께 적어 놓았다. 제16면 제8행부터 제60면 마지막까지는 『譯語類解補』⁴⁾에 실린 어휘들이 수록되어 있다. 제16면 제8행 <天文補>부터가 『譯語類解補』이다. 지면이 부족한 탓으로 광곽의 상단 빈 공

간에도 적고 있다. 『譯語類解補』는 <天文補>부터 <瑣說補>까지 모든 항목의 어휘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선별하여 적었기에 일부 어휘들은 생략된 것도 있다.

표지에 적은 ‘譯語彙選’의 ‘譯語’는 중국어를 의미한다. 즉 중국어의 어휘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中華正音’ 부분의 기본적인 표기 체제는 우측에 중국어, 좌측에 한글로 석의를 적어 놓았다. 중국어는 한글로 중국어 주음도 함께 적었는데, 매 글자 아래에 해당 발음을 적은 형태이다. 간행본 『譯語類解補』는 운서의 규정음과 실제 중국어의 발음 두 가지를 표기하고 있지만 이 책은 실제 중국어의 발음만 적혀 있다.

4) 『譯語類解補』는 1775년 사역원에서 金弘喆이 1690년에 편찬된 『譯語類解』를 보충하여 1책으로 간행한 책이다. 체제는 『譯語類解』와 동일하게 각 어휘를 문항별로 배열하고 중국어 발음과 뜻을 한글로 적어 놓았다.

- <표기 체제> ① 萬萬歲爺爺여萬萬福平嗎마
 항상계서 만복하신니가 <제1면>
 ② <天던文운補부>
 天던淸淸亮량 하늘 청명하다 <제16면>

표기 중에는 발음만 있고 중국어가 누락된 것도 있고 잘못 기입한 중국어도 발견된다. 또한 대역은 대부분 한글로 적었지만 일부 대역은 한자로 설명한 것도 있다.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누락: 湯湯 [] 𪚩過귀去취 여을노 건너가자
 父부親 [] 아비
 手수腕 [] 왈 손목
 오자: ① 眼안看간用용易이作조手수難난
 보기는 쉬너도 손으로 민덜기는 일여오니라
 ② 愛이着조我我來來너啞조 너 것히 와 안거라
 ③ 乃乃爲爲위食시亡왕 식는 먹기로 위하여 죽는이라
 ④ 奴奴才才치利니害히主주子子즈喫치嗎嗎
 종이 스오나오면 주인이 욱을 먹는이라
 ⑤ 足蹠 발
 한문 대역: ① 叔수叔수 三寸
 ② 鼻빌樛냥 準頭
 ③ 一이手수欸토兩兩냥架가 兩手執餅

누락 글자는 위의 예시와 같이 중국어가 빠진 것도 있고, 중국어 발음 표기가 빠진 것도 있다. 뒤에서 여을을 ‘湯消’를 제시한 용례가 나오므로 누락된 글자는 ‘消’이다. 또한 중국어의 兒化韻 표기는 일괄 생략하였다. 한글주음에는 ‘쉬왈’처럼 兒化韻 발음을 적은 반면에 중국어에는 ‘兒’자를 생략하였다. 이는 이 책에서 거의 일관되게 보이는 표기 특징이다.

오자는 중국어 발음과 중국어가 맞지 않는 것, 발음은 맞지만 한글 대역문과 비교하면 중국어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같은 음으로 음차한 것도 있다. 예시를 보면 ‘用’은 ‘容’, ‘愛’는 ‘挨’, ‘乃’는 ‘鳥’, ‘嗎’은 ‘罵’, ‘足’은 ‘脚’으로 수정

되어야 합당하다. 중국어의 대역은 거의 대부분 한글이지만 일부 한자로 풀어 놓은 것도 있다. ‘一手馱兩架’는 두 가지 일이 똑같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를 의미하는 사자성어 ‘兩手執餅’으로 풀어 놓았다.⁵⁾

또한, 이 책에는 특정 어휘에 대한 표기 특징이 나타나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兒】

乙子 [을즈] 아들

咳兒利害爺娘喫嗎[罵] [히알니히여랑치마] 죽식이 스나오면 부모가 육을 먹는다

【대명사 那嗎, 甚嗎】

別那嗎太強 [벼나마타강] 그다디 강박키 구지 마라

別那嗎退辭 [벼나마퇴츠] 그럿케 편게 마라

你有甚嗎能迺[耐] [이우심마능늑] 네 무슴 능흔 직간이 남난다

【동사 ‘惱’】

惱[鬧]6)事不第罪嗎 [낫스부산취마] 잘못된 거슨 죄가 아니냐

你惱[鬧]的嫁給誰啊 [니노디가괴쉬아] 네 잘못된 거슬 뉘기 밀칠나냐

유일하게 이 책에서만 ‘兒子’를 ‘乙子’로 표기하였다. 보통 ‘一候乙’, ‘多候乙’과 같이 ‘一候’뒤에 兒化韻이 편입되어 쓰이는 경우에 ‘兒’을 ‘乙’로 표기하는데, 아들을 ‘乙子’로 표기한 것은 필사자의 중국어 언어 습관 및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咳兒’의 ‘該’는 ‘孩’를 음차한 것으로 보인다.

지시대명사 ‘那嗎’와 의문대명사 ‘甚嗎’는 현대중국어 ‘那麼’와 甚麼이다. 이 책은 지시대명사와 의문대명사 모두 일괄 ‘嗎’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문어기조사는 ‘麼’가 아닌 ‘嗎’로 표기하였다.

5) 장서각 소장 『你呢貴姓』에도 같은 내용이지만 중국어 표기가 다르다. ‘一手托兩駕[이쉬토 냥자] 한 손의 두어리라 <你呢貴姓 28b>

6) [] 안은 원래 필사되어야 할 글자를 필사가 임의로 넣은 것이다.

조선후기 중국어 학습서들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鬧’를 ‘惱’로 음차하여 표기한 점이다. 소란을 피우거나 문제를 저질렀을 때 사용되는 어휘이다. 여기에서는 ‘잘못하다’로 번역하였다. 다른 중국어 회화서에서는 중국어 발음 ‘nào’를 그대로 차용하여 ‘나우하다’, ‘나위하다’, ‘노타’로 대역한 예도 있다.⁷⁾

다음으로 조사는 咧, 哪, 罷, 嗎 등이 사용되었다.

- ① 使喚來的這樣晚哪 [쓰환늬디저양완나] 스환흔는 스람이 이다지 늦기 구는야
- ② 不管人家事, 自管你的事罷 [부관인자스, 즈관니디스바] 남의 일을 아른 체 말고 네 일이나 간섭혀여라
- ③ 不要滿些淺一點罷 [부양만설턴이덜바] 그르세 촛오지 말고 쥬곰 골캐 답어라
- ④ 下咧-[以]後送給傘 [샤려이후송기산] 비 마진 후 우산 보너 쥬려노나
- ⑤ 一頭下一頭化, 若不化咧多一尺 [이투샤이투화야부훤너도이치] 一邊下一邊消, 若不消幾滿一尺許
- ⑥ 萬歲爺萬福嗎 [완쉬여완푸마] 황상계셔 만복혀신니가

‘罷’는 현대중국어의 ‘吧’에 해당하며 명령, 제안 등의 의미로 활용되었다. 咧은 현대중국어의 ‘了’에 해당하며 동태조사로 활용되었다. ⑤는 가정문에서 若과 함께 쓰여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⑥은 현대중국어에서 의문 어기조사로 활용되는 嗎가 사용된 예시이다. ⑥을 제외한 예시들은 조선후기 중국어 회화서가 대체적으로 보이는 양상으로 이 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해보면, 『譯語彙選』은 중국어 학습을 위해 임의적으로 『譯語類解補』를 비롯한 중국어 관련 서적들을 참고하여 문장과 어휘들을 옮겨 적은 것으로

7) 你這個明白人又是惱粧糊塗.(네 명백흔 스람이 쏘흔 후두를 나우혀는 테혀는구나) <學清 11a> 惱幾箇月的工夫, 人家的票滿日子咧. (몇 달 동안을 나위혀니 남의 여슈가 일자가 찻는디) <중화정음-탁죽문고 17b> 小兄弟在這裏你不用惱咧, 快干你的去罷.(저근 동싱아 예셔 네 노타디 말고 결시 네 일을 간섭하러 가거라.) <중화정음-아천문고 16a>

판단되며 필적과 필사 체재로 보아 한 사람이 전체 모두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에 유통된 중국어 회화서 중 “中華正音”이란 서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中華正音』, 순천대 소장 『中華正音』, 일본 동경대학 阿川文庫 소장 『中華正音』, 일본 駒澤大學 濯足文庫 소장 『中華正音』, 연세대 열운문고 소장 『中華正音』, 박재연 소장 『中華正音』(화봉문고 구장본),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中華正音』 등 여러 종이 전한다.⁸⁾

‘中華正音’은 중국어 표준말이라는 의미로 조선후기 중국어 학습서의 대명사처럼 쓰였다. 비록 회화체 위주의 내용은 아니지만 속담과 어휘 등 중국어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속담·관용구집의 성격을 띠는 숭실대 소장 『中華正音』과 같이 이 책에서도 내제를 ‘中華正音’이라 쓴 것으로 판단된다.

3. 내용 구성 및 특징

『譯語彙選』의 ‘中華正音’ 부분을 세분하면 간단한 회화문, 속담, 그리고 어휘들로 나눌 수 있다. 회화 문장은 22개, 속담은 51개, 어휘는 184개이다. 페이지별로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중간 중간에 회화, 속담, 어휘가 서로 섞여 있지만 제1면부터 제9면까지는 회화 문장과 속담이, 제10면부터 제16면까지는 어휘가 대다수를 이룬다.

1) 회화문

① 萬歲翁萬福嗎 [완취어완푸마] 황상계서 만복하신니가⁹⁾

8) 숭실대 소장 『中華正音』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어 회화문을 수록한 회화서의 성격이 강하다. 숭실대 소장본은 상용구와 속담이 많이 실려 있다.

- ② 京裡太平嗎 [징니티평마] 북경이 티평호오
- ③ 使喚來的這樣晚哪 [쓰환니디저양완나] 스환호는 스람이 이다지 늦기
구는야
- ④ 不管人家事, 自管你的事罷 [부관인자스즈관니디스바] 남의 일을 아
른 체 말고 네 일이나 간섭호여라
- ⑤ 愛[挨]着我來啞 [이쵸웨니조] 니 것히 와 안거라
- ⑥ 你有甚嗎能迺[耐] [이우심마능니] 네 무슴 능호 직간이 남난다
- ⑦ 不要滿些淺一點罷 [부야만설턴이덜바] 그르세 초오지 말고 조금 골
캐 답어라
- ⑧ 惱[鬧]事不第罪嗎 [낫스부완죄마] 잘못호 거슨 죄가 아니냐
- ⑨ 別那嗎太强 [벼나마티강] 그다디 강박키 구지 마라
- ⑩ 別那嗎退辭 [벼나마퇴츠] 그렛캐 핀게 마라
- ⑪ 你是甚交我, 我却是惡不着你 [니스쿵쟌웨, 웨커스어부져니] 너는 나
를 쇠길랴 호여도 나는 너를 악키 못귀갓다

전체 22개 문장 가운데 기존의 조선 후기 필사본 중국어 회화서에 나오지 않았던 문장만 선별한 것이다. 본문 첫 면은 “萬歲爺萬福嗎”로 중국 황제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북경의 상황을 묻는 “京裡太平嗎”가 나온다. 이후로는 속담들이 나오며 중간에 드문드문 회화문이 확인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장들만 선별하여 수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적으로 간결한 단문들이며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금지문 등의 문형이 보인다. 그중에서도 나무라거나 명령하는 유형의 문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속담

속담은 중국어에서 말하는 熟語와 통칭된다. 熟語는 고정된 형태의 구, 절,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형태를 임의로 바꿀 수 없고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해야 하며 成語, 諺語, 格言, 慣用語, 歇後語 등을 포함한다.¹⁰⁾ 오랜 기간 전승해 온 그 나라의 역사, 사회, 문화적 배경을 보여주는

9) 이하 예문에서는 가독의 편의를 위해 중국어, 중국어발음, 한글대역 순으로 제시한다.

특수한 언어 표현 형태이다. 속담의 활용은 중국인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보다 수준 높은 중국어를 구사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 책에 나오는 속담은 크게 諺語, 成語, 歇後語 등으로 확인된다. 그중에서도 諺語가 가장 많다. 諺語는 서민들의 생활에서 전해온 통속적이고도 간결한 구어체로 지혜, 교훈적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언어 형태이다. 成語와 달리 글자 수에 제한이 없으며 비유 혹은 대구의 방법으로 문장이 표현되어 있다. 기존의 조선 시대 중국어 회화서들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속담은 다음과 같다.

- ① 老烏宇[窩]裡出鳳凰 [낚과월니츄풍항] 가마피 등지여 봉황이 낫다
- ② 好漢不怕出身己 [화한부파츄신지] 잘난 사람은 지체 나진 거슬 접피 안니한다
- ③ 水土不服 [쉬투부푸] 슈토가 입의 맛지 안니한다
- ④ 添錢好買貨 [턴첸화미호] 갑슬 만이 주면 조흔 물건을 사리라
- ⑤ 穩着不擔憂 [운저부단위] 두어 두워도 근심을 안니히기다
- ⑥ 下咧一[以]後送給傘 [샤려이후송기산] 비 마진 후 우산 보너 쥬러노 나
- ⑦ 做工到沒有不成 [주궁담무우부청] 공부을 일위면 되지 못홀 일이 업는니라
- ⑧ 錢財頭人在後 [첸치투인지후] 돈이 압셔고 스람은 뒤이 셔는이라
- ⑨ 小心必得省 [샤신비더승] 조심히면 조심 덕을 입는이라
- ⑩ 口苦的藥有益病 [쿠쿤디약위이빙] 입의 쓴 약이 병의는 유익히다
- ⑪ 但行好事莫問前程 [단싱화스맛운첸청] 다만 조은 일만 히고 던정을 못자[지] 마라
- ⑫ 水過地必濕 [쉬귀디비식] 물 간 쌍은 반다시 습하는이라
- ⑬ 瘦馬不離草 [슈마부니츠] 파린 말이 풀을 썬나자[지] 안는다
- ⑭ 交頭接眉 [쟈투저미] 머리을 맞다이다
- ⑮ 人心不直天打地裡紅 [인신부지첸다딜니홍] 스람 마암이 직지 못히면 하늘이 벼악을 치시난니라
- ⑯ 雲往南北去 [운왕남북취] 구름이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한다

10) “語言中定的詞組或句子。使用時一般不能任意改變其組織，且要以其整體來理解語義。包括成語、諺語、格言、慣用語、歇後語等。”『辭海』(3권, 1999년판普及本), 上海辭書出版社, 3347쪽, 2002.

- ⑰ 一聽一流 [이청이류] 드르면 낫난다
- ⑱ 傍盪水点点不滴外 [팡연쉬덜덜부뉘왜] 첨아의 낙수가 점 : 이 썰러져
도 더 밧기 썰러지 : 안니라

① ‘老鳥宇[窩]裡出鳳凰’은 조건이 아주 나쁜 곳에 큰 인물이 나온 경우를 비유하여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속담 “개천에서 용 났다”, “개똥밭에서 인 물난다”와 상통한다. ② ‘好漢不怕出身己’는 사람이 훌륭하면 그 출신을 따지 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③ ‘水土不服’는 물과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다는 의미 이다. ④ ‘添錢好買貨’는 돈을 더 주면 좋은 물건을 사기가 쉽다는 의미이다. ⑤ ‘穩着不擔憂’는 가만히 두면 걱정이 없다는 뜻이다. ⑥ ‘下咧一[以]後送給傘’은 비 다 맞은 뒤에 우산을 보낸다는 뜻으로 우리나라 속담 “소 잃고 외양 간 고친다”와 상통한다. ⑦ ‘做工到沒有不成’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놀지 말고 공부에 힘쓰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속담 “논 자취는 없어도 공부한 공은 남는다”와 상통한다. ⑧ ‘錢財頭人在後’는 ‘錢在前頭, 人在後頭’로 쓰기도 한다. 돈이 우선이고 사람은 그 다음이라는 뜻이 다. 돈이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여야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 라 속담 “돈이 없으면 적막강산이요 돈이 있으면 금수강산이라”와 상통한다. 아무리 돈이 소중하다 해도 사람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는 “사람 나고 돈 낫지 돈 나고 사람 낫나”와는 상반된다. ⑨ ‘小心必得省’은 ‘小心沒大差’와 비슷하 다. 조심하면 낭패가 없다는 의미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조심할 것을 경계하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속담은 “식은 죽도 불어가며 먹어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와 호응할 수 있다. ⑩ ‘口苦的藥有益病’은 ‘苦口良藥’로 쓰기도 한다. 자기에 대한 충고나 비판이 당장은 듣기 불편하지만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면 본인에게 이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속담은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 “입에 쓴 약이 병을 고친다”와 호응할 수 있다. ⑪ ‘但行好事莫問前程’은 그저 좋은 일만 행하고 벼슬 등의 보상을 묻지 마라 는 의미이다. ⑫ ‘水過地必濕’는 ‘水過地皮濕’와 같은 뜻이다. 물이 지나간 땅 은 축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속담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고양이 세수하듯”처럼 물이 땅을 푹 적시지 못하고 거죽만 슬쩍 적신다는 의미에서 일을 대강대강 해치우는 것을 비유한다. 다른 하나는 눈앞에 큰 이익이 떨어져 자신에게도 수익 일부를 얻었을 때를 의미한다.¹¹⁾ ⑬ ‘瘦馬不離草’는 아된 말은 풀밭을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⑭ ‘交頭接眉’는 머리를 맞대고 수근거리는 것을 비유한다. 비슷한 의미로 ‘交頭接耳’이 있다. ⑮ ‘人心不直天打地裡紅’의 올바른 표기는 ‘人心不直天打雷劈，地裡紅’으로 판단된다. 사람의 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벼락을 맞는다는 의미이다. 정직한 마음가짐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비유한 것이다. ⑯ ‘雲往南北去’는 구름이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이다. ⑰ ‘一聽一流’는 우리나라 속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와 상통한다. ⑱ ‘榜檻水点点不滴外’는 처마의 낙수가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房檐滴水，点点入舊窩’와 같은 의미이다. 이 속담은 처마 끝의 물방울이 제자리에 떨어지는 뜻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전과 같은 모양임을 비유하여 쓴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은 “낙숫물은 떨어진 데 또 떨어진다”와 통한다.

다음으로 조선시대 중국어 회화서들과 중복되는 속담들도 확인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華音撮要』¹²⁾와 가장 많이 중복된다. 전체 19개가 중복되며 그중 10개는 오로지 『華音撮要』와만 겹친다.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溫端政 主編, 『中國俗語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835~836쪽, 1989.

12) 『華音撮要』는 일본 소장문고 소장되어 있는 책으로 1877년에 徐順昌이란 인물이 필사하였다. 전반부는 중국 상인王大哥와 한국 상인黃老다가 鳳凰城에서 나누는 물품 교역과 관련된 중국어 회화들이며 후반부는 앞의 회화 내용과는 별개로 <伏兵答問>, <開始問答>, <勅使問答>, <日用行語>, <日用雜語>가 추가로 수록되어 있다. 동경대학 阿川文庫에 소장 『中華正音』과는 이본 관계에 있다. 앞부분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華音撮要』의 분량이 약 5,000자 가량 더 많으며 후반부의 내용도 아전문고본에는 없는 부분이다. 更科愼一, 「9世紀末朝鮮の北方漢語資料『華音撮要』の研究」, 『アジアの歴史と文化』9輯, アジア歴史・文化研究會, 2005./ 박재연, 「조선 후기 필사본 한어회화서 阿川文庫 『中華正音』에 대하여」, 『중국어문학지』31집, 중국어문학회, 2009./ 汪維輝·遠藤光曉·朴在淵·竹越孝, 『朝鮮時代漢語教科書叢刊續編』, 中華書局, 2011./ 박재연, 「조선 후기 필사본 한어회화서 六堂文庫 『騎着匹』에 보이는 稀貴語와 借用語에 대하여」, 『역학과 역사학』 3호, 역사서학회, 2012 등 참조.

- ① A¹³⁾: 求[救]人的佛爺處處有的 [쥬인디푸여츄츄위디] 스람 구흐난 무
[부]처논 곳:디 잇논이라
B: 救人的佛爺處:有 [쥬인디보여츄:위] 스람 구흐논 붓체난 곳:
지 잇논이라
- ② A: 暴別人誇自己的 [포벼인짜즈지디] 남을 헐치고 저만 자랑한다
B: 破別人誇自己的 [포벼인짜즈기] 남은 헐고 저 몸을 자랑한다
- ③ A: 山高隔不得太陽 [산갠져부더티양] 산이 높하호도 벗 갈이오지 못
한다
B: 山高遮不得太陽 [산갠져부더티양] 산이 높파도 벗출 가리오지 못
하고
- ④ A: 眼看用[容]易作手難 [안칸용이조쉬난] 보기는 쉬너도 손으로 민
덜기는 열여오니라
B: 眼裡看是容易手裡做的難 [안리칸스용이쉬리조디난] 눈의 보기는
쉬오되 손의 만들기어렵다
- ⑤ A: 水深過不得, 山高上不去 [쉬신귀부더, 산갠상부취] 무리 깊혀 건
너지 못한다 저 산이 높하 오오지 못한다
B: 水深過不得, 山高上不去 [쉬신고부더, 산갠상부취] 물이 깊퍼 지
나가지 못하고 피가 높파 올라가지 못한다
- ⑥ A: 滿口都是好話, 心中不是好意 [만루두스환화, 신중부스환의] 입의
찬 거시 죠흔 말이라 심중의 죠치 안인 의샤로라
B: 滿口都是好話, 心中不是好意 [먼루두스환화, 신중부스환이] 입의
가득한 거시 다 죠흔 말이로되 마음 가온디는 죠흔 뜻지 아니라
- ⑦ A: 萬事不如計教, 福不至萬事難 [완스부유위기갠, 푸부즈완스난] 만
스가 계교 갖지 못하다 복이 일으지 아니면 맘[만]스가 어렵도다
B: 萬事不由人計教, 福不至萬事難 [완스부위인기갠, 부부지완스난]

13) A는 본고에서 소개하는 『譯語彙選』을 B는 『華音撮要』를 지칭하며 표기가 다른 부분은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만사가 스람의 계교되로 되지 못흐느니라 복이 니르지 아니흐면
만사가 어려오니라

- ⑧ A: 奴才利害主子喫嗎[罵], 孩兒利害爺娘喫嗎[罵] [누치니히쥬즈치마, 히알니히여랑치마] 종이 스오나오면 주인이 옥을 먹는다 이라 즈식이 스나오면 부모가 옥을 먹는다 이라
B: 奴才利害主子吃罵, 孩兒利害爺娘吃罵 [누치니히쥬즈치마, 히으니히여랑치마] 종이 스오나오면 남지가 옥을 먹고 자식이 스나오면 부모가 옥을 먹는다 이라
- ⑨ A: 少債快說謊 [산척쾌쇄황] 빚진 스람이 거짓말을 잘흐느니라
B: 少債快說謊 [산척쾌쇄황] 빚지면 거짓말하기 잘흐느니라
- ⑩ A: 餓不吃貓飯, 冷不烤燈火 [어부치만반, 능부칸호] 듀려도 피밥 먹지 으느니라 치위도 등불 쏘이지 안이하다
B: 餓不喫貓飯, 冷不烤燈火 [어부치만반, 능부칸등호] 쥬려도 피밥은 먹지 아니코 치위도 등불은 썬지 아니흐나니라

① ‘求[救]人的佛爺處處有的’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와주는 사람은 다 있다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우리나라 속담 “사람 살 곳은 골골이 있다”와 통한다. ② ‘暴別人誇自己的’는 남을 헐뜯고 자기만 자랑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譯語彙選』은 ‘暴’자로 『華音撮要』는 ‘破’자를 쓰고 있지만 의미는 통한다. ③ ‘山高隔不得太陽’은 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해를 가리지는 못하다는 뜻이다. 방해를 해도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할 때 또는 높은 것 위에 더 높은 것이 있을 때 비유할 수 있다. ‘가리다’는 의미로 각각 ‘隔’과 ‘遮’를 사용하였다. 『華音撮要』는 뒤에 ‘牛大壓不死虱子’와 대구를 이루어 호응하고 있다.¹⁴⁾ ④ ‘眼看用[容]易作手難’은 보기에선 쉬워 보여도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譯語彙選』에 누락되거나 잘못 쓴 글자들의 오류가 『華音撮要』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 ⑤ ‘水深過不得, 山高上去’는 물이 깊어 건너지 못하고 산이 높아 오르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⑥ ‘滿口都是好話, 心中不

14) “牛大壓不死虱子 [누다다부쓰서즈] 쇼가 커도 니를 눌러 죽이지 못흐나니라.”

是好意'는 마음속으로는 좋지 않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비유한다. 우리나라 속담 “겉 다르고 속 다르다”와 상통한다. ⑦ ‘萬事不如計教, 福不至萬事難’은 모든 일이 잘 풀리려면 운도 따라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이 안되려면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불행도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속담 “재수가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재수가 없는 포수는 꿈을 잡아도 웅담이 없고 복 없는 봉사는 쾌문을 배워 놓으면 개좃부리 하는 놈도 없다” 등과 통한다. ⑧ ‘奴才利害主子喫嗎[罵], 咳兒利害爺娘喫嗎[罵]’는 종이 잘못하면 주인이 욕을 먹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다는 의미이다. ⑨ ‘少債快說謊’은 빚진 사람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의미이다. ⑩ ‘餓不吃貓飯, 冷不烤燈火’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고양이 밥은 먹지 않고 아무리 추워도 등불은 쪼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이상과 같이 『譯語彙選』의 속담 일부가 『華音撮要』에도 기록되어 있어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 두 책은 속담에 있어 일부분 친연성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표기 및 내용 부분은 『譯語彙選』보다 『華音撮要』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또, 『譯語彙選』에서 잘못 필사되었거나 누락된 글자나 구절 등을 『華音撮要』를 통해 일부분 보완도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어 표기가 다른 점이 많아 『譯語彙選』이 『華音撮要』를 참고하여 필사하였을 가능성은 낮으며 다른 계열의 중국어 학습서를 참고하여 적었거나 여러 서적에서 선별하여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 『朴通事』 계열의 판본들, 승실대 『中華正音』, 장서각 소장 『你呢貴姓』¹⁵⁾ 등과 일치하는 속담들도 있다.

15) 人倒台馬倒站 [인단티마단잔] 슨람 못된 거슨 잘리에 못 잇고 말 못된 거슨 발마가 되
 닌이라 <『譯語彙選』> 人到台馬到站不用說 [런단티마단잔부용쉬] 슨람은 틱상 니르며
 말은 참 가면 말 아니타 <『你呢貴姓』> 財明意不疎 [치밍의부수] 회계를 발키 흐면
 의가 틀니디 안는이라 <『譯語彙選』> 財明意不疎 [치밍의부수] 직물 발키 하면 뜻이 □
 □□□□ <『你呢貴姓』> 財明意不疎 [치밍의부수] 직물이 명빅하디 니가 틀니지 아니
 허리라 <승실대 『中華正音』>

日久見人心 [이귀견인신] 나리 오리면 인심을 보논이라 <『譯語彙選』>
 日久見人心[이귀견인신] 날이 오라매 사람의 마음을 보논이라
 <『朴通事諺解』中:14b>
 遠行知馬力, 日久見人心 [우년형지마리, 이귀견인신] 멀리 행하면 말 힘을
 알고 날이 오리면 사람의 마음 아논이라. <『華音撮要』>

‘日久見人心’은 사람의 마음은 오래 지내보아야 그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속담은 『朴通事諺解』에서부터 나타나며 명청대의 소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속담이다.¹⁶⁾ 『華音撮要』는 앞 구절에 ‘遠行知馬力’도 제시하여 대응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引風吹火—用力不多 [인풍취호, 용리부도] 바람을 인하여 불을 불면 심
 이 더지 안논이라 <『譯語彙選』>
 引風吹火—用力不多 [인풍취회, 용리부도] 바람을 인하여 불 노흐
 면 심을 허비치 안난이라 <송실대 『中華正音』>
 因風吹火—用力不多 [인봉취호, 용리부도] 바람을 인하여 불을
 불면 힘쓰는 거시 만치 안난이라 <『華音撮要』>

위의 예시는 歇後語이다. 歇後謎語로, 앞부분은 수수께끼처럼 형상적인 비유가 뒷부분은 本義를 나타낸다. 이 책에 등장하는 혈후어는 이 예가 유일하다. “바람을 이용해 불을 피운다—힘이 들지 않는다.”는 뜻인데 힘을 들이지 않고 어떤 일을 처리하게 될 때를 비유한 것이다.

16) “‘日久見人心。’ 前日老孫只偷了三個，那一個落下地來，土地說這寶遇土而入，八戒只嚷我打了偏手，故走了風信，只纏到如今，才見明白。” 이 망녕들닌 아히들아 상담의 날오디 날이 오라면 사람의 마음을 안다 하니 노손이 전의 짜다가 닐코 다만 세홀 짜 먹엇거든 샤들닌 아히들은 네홀 짜다 호고 덤턱도다지는 호나홀 움쳐 먹다 호고 꾸짓더니 이제야 나의 청념호 발이 싸디도다 <西遊 延世 4:37> ▼ “俗語道的, ‘日久見人心’, 一點也不錯。” 속어의 니르디 날이 오리여 스텝의 마음을 본다 호미 일덤도 그러지 아니타 <補紅樓夢 20:5>

3) 어휘

『譯語彙選』에 수록된 어휘는 184개이다. 어휘는 복식, 기물, 식물, 동물, 신체, 친족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울러 적고 있다. 이 책에는 『譯語類解』, 『華語類抄』 등의 어휘집을 비롯한 『朴通事』, 『老乞大』, 『華音啓蒙諺解』, 『中華正音』, 『騎着匹』 등의 중국어 회화서들에는 나오지 않은 새로운 어휘들이 있어 특기할 만하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木屯子 [무둔즈] 나무토막이 | 坑(梢) ¹⁷⁾ [강산] 방구석 |
| 柳好菜 [부한치] 물숙나물 | 允太菜 [윤두치] 당콩지 |
| 春梨子 [춘니즈] 구름 | 疵口 [피쿠] 황문 |
| 盟兄 [명승] 의형 | 盟弟 [명디] 의제 |
| 行打倒 [싱다단] 물너달나 헛은 것 | |
| 不行打倒 [부싱타단] 물너주지 못헛기다 | |
| 老宮 [노궁] 內官 | 成光道 [청광단] 번 : 헛 길 |
| 爛爛的 [난난] 잘 너킨 것 | 二叉子 [얼차즈] 소시랑 |
| 木扇 [무산] 녁가리 | 等高 [등갠] 스닥다리 |
| 亮席 [냥식] 돛 | 細紋洋布 [시운양부] 西洋紬 |
| 白礪月石 [비관위시] 분스 | 洋貢緞 [양궁단] 洋貢緞 |
| 廣東夏布 [광둥샤부] 廣東布 | 花虎皮 [화후피] 출범가죽 |
| 山猫皮 [산묘피] 니피 | 身裡空空 [신니쿵쿵] 시장헛다 |
| 洋紗 [양스] 노원부 | |
| 你是巷交我, 我却是惡不着你 [니스쿵쟈웨, 웨커스어부져니] 너는 나를 | |
| 죄길라 헛여도 나는 너를 악키 못귀겠다 | |

‘木屯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어휘이다. 이 책에서는 나무토막으로 풀었다. ‘坑(梢)’는 ‘방구석’으로 풀었다. 발음을 ‘강’으로 적고 있는데 ‘坑’이 아닌 ‘炕’을 의미하는 듯하다. ‘柳好菜’는 ‘물숙나물’로 표기하였다. 물숙나물은 ‘물쭈나물’로 이른 봄에 나온 물쭈으로 즐기나 잎을 데쳐서 나물로 무친 것을

17) 글자가 빠져 있지만 발음 ‘쇼’를 근거로 ‘梢’를 기입하였다.

말한다. 청포묵에 섞어 무쳐 먹기도 한다. ‘允太菜’는 발음을 ‘윤두척’으로 표기하였는데 ‘太’자 대신 ‘豆’자를 표기하는 것이 합당하다. 당콩지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미상이다. ‘春梨子’는 ‘구름’으로 풀었다. ‘구름’은 구름나무의 열매이다.

‘疵口’를 신체의 한 부위인 ‘항문(肛門)’으로 풀었다. ‘疵’는 다리가 저리는 질병과 관계되는 글자이다. 중국어 발음 표기가 ‘피’이므로 ‘尻’가 합당하다. ‘尻口’는 『漢語大詞典』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역어유해』에서는 ‘糞門’을 항문으로 풀이하였다. ‘尻口’는 새로운 중국어 표기이다. ‘盟兄’와 ‘盟弟’는 의로 맺은 형과 아우를 뜻한다.

‘行打倒’와 ‘不行打倒’의 ‘打倒’는 현재 때려눕히다, 타도하다, 쳐부수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남에게 입힌 손해를 돈으로 갚아 주거나 본래의 상태로 해 주는 ‘물다’로 풀이하고 있다. 『漢語大詞典』과 『近代漢語大辭典』은 ‘退貨還錢’으로 풀이하고 ‘dào’ 4성으로 표기해 놓았다. ‘打倒’는 근대 중국어 어휘로 ‘行打倒’는 ‘물어줄 수 있다’, ‘不行打倒’는 ‘물어줄 수 없다’로 쓰였다. 한글과 함께 풀어서 제시한 용례는 여기에서 처음 등장한다.

‘老宮’은 ‘환관’의 의미로 풀었는데 ‘公’을 ‘宮’으로 잘못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老公’은 ‘太監’ 즉 환관을 의미한다. ‘成光道’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편편하고 번듯하게 뻗어 만들어진 길을 의미한다. ‘木扇’은 곡식이나 눈 등을 한쪽으로 밀어 모으는데 쓰는 기구를 가리키는 ‘넉가래’를 뜻한다. ‘等高’는 『漢語大詞典』에 표제어로 올라와 있지 않다. 이 책에서는 사다리, 사닥다리로 풀었다. ‘亮席’는 돛자리로 풀었다. ‘涼’을 ‘亮’으로 잘못 적은 듯하다. ‘細紋洋布’, ‘洋貢緞’, ‘廣東夏布’, ‘洋紗’는 모두 옷감 종류의 하나이다. ‘花虎皮’는 호랑이 가죽이다. ‘山猫皮’의 ‘山猫’는 호랑이 또는 스라소니를 가리킨다. 山猫皮를 니피로 풀었다. ‘니피’는 스라소니 가죽, ‘獠皮’를 의미한다.

‘身裡空空’은 재미있는 단어 조합의 예시이다. 몸속이 비었다 의미로 배고프다, 시장하다고 쓰고 있다. 마지막 문장의 ‘巷爻’는 ‘속이다’로 해석했는데

중국어 발음 표기는 ‘콩쟌’이다. 발음과 중국어 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발음 ‘콩’에 해당되는 글자는 ‘곤경에 빠트리다’ 뜻을 가지는 ‘坑’자가 아닐까 판단된다.

다음은 의미가 불분명한 미해결 어휘들이다.

【의미 불명】

醬守 [장수] 동목 쓰는 것 奪戲 [타시] 하동흔다
 肩膀 [쟌팡] 회복흔난 방이라 馬子 [마류즈] 니불집
 白礮月石 [빅관워시] 분스
 衍來衍不來 [항늬항부리] 혹시 오기도 흥고 안니 오기도 흥난이라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의미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肩膀’은 중국어 발음 ‘쟌팡’과도 일치하지 않는데 ‘肩’이 아닌 다른 글자로 대체되어야 할 듯하다. 한국어로는 ‘회복흔다’로 풀었는데 ‘회복’은 해산하다는 의미인 解腹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아이를 낳는 해산방으로 추측되는데 정확한 중국어 표기는 미상이다. ‘니불집’은 중국어 발음을 ‘마류즈’로 적었다. ‘류’에 해당하는 중국어 표기 역시 미상이다. ‘衍來衍不來’의 ‘衍’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발음을 ‘항’으로 적고 ‘혹시’로 대역하였는데 다른 글자일 가능성도 있다.

4. 나가며

새로 발견된 조선 후기의 중국어 학습서 『譯語彙選』을 소개하고 내용과 그 특징을 고찰한 글이다.

『譯語彙選』은 광산 김씨 故 金極中씨의 구장본으로 현재는 후손이 소장하고 있다. 1책이며 전체 60면이다. 제1면부터 제16면까지는 ‘中華正音’의 내용이며 이후 마지막 제60면까지는 『譯語類解補』를 옮겨 적어 놓았다. 표제는

『譯語彙選』이지만 본문의 내제는 ‘中華正音’으로 제목이 서로 다르다. 본래는 中華正音으로 출발하여 필사하다가 『譯語類解補』의 내용을 상당부분 수록하면서 표지 제목을 총괄할 수 있는 의미로 바꾼 듯하다. 즉, 譯語彙選은 외국어인 중국어 학습을 위해 필요한 어휘와 문장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는 뜻에서 명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한 부분은 “中華正音”의 내용이다. 내용의 특성을 분류하면 회화문 22개, 속담 51개, 어휘 184개로 나뉜다. 문장은 일관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간단하고 비교적 짧은 문형들을 실었으며 속담은 현존하는 중국어 회화서 『華音撮要』의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다. 비록 같은 계열의 필사본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속담 부분만큼은 『華音撮要』를 통해 『譯語彙選』을 보완할 수 있는 일정 부분 친연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中華正音』 계열의 회화서, 『你呢貴姓』, 송실대 『中華正音』 등과도 연관되는 문장도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당시에 유통되었던 조선후기 중국어 학습서가 일정 부분 의도의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내용이 공유되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어휘는 항목별 수록 어휘는 많지 않지만 친족, 신체, 음식, 복식, 식물, 기물 등 분야는 폭넓다. 대부분 1자~5자 내외의 어휘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184개의 어휘 중 새롭게 제시된 것도 있고 중복되는 어휘도 있었다. 중복되는 어휘는 『譯語類解』의 어휘를 옮겨 적은 것이 많았다.

“中華正音”의 서명을 가지는 조선후기 중국어 회화서가 여러 종 전하는데 이 책은 중국어 회화서는 아니지만 중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속담 및 어휘를 담고 있으므로 당시 포괄적이고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던 서명 ‘中華正音’을 내제로 사용한 듯하다. 새로 소개하는 『譯語彙選』은 조선 후기 중국어 학습의 일면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譯語彙選』(1책), 필사본, 개인 소장(광산김씨 가문).
- 『華音撮要』(1책), 필사본, 일본 소장문고 소장.
- 곡효운, 「關於朝鮮時代的幾種『中華正音』」, 『중국어문학논집』58, 중국어문학연구회, 2009.
- 김만원, 「이야기 구조를 전제로 한 협의의 고사성어 개념 정립을 위한 제언」, 『중어중문학』40, 한국중어중문학회, 2007.
- 김종택, 「속담의 기능과 의미 구조」, 『새국어생활』4-2, 국립국어연구원, 1994.
- 박민수, 「중국어 熟語의 修辭적 표현에 대한 소고」, 『중국어학』40, 2011.
- 박재연·김영, 「새로 발굴된 한어 속담·상용구집 『中華正音』」, 『중국어문학논집』44, 중국어문학회, 2013.
- 박재연, 『朝鮮後期漢語會話書辭典』,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2010.
- 朴在淵, 『中朝大辭典』(9책),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2002.
- 박재연, 『한글필사문헌과 사전편찬』, 서울: 역락, 2012.
- 박재연, 「조선 후기 필사본 한어회화서 六堂文庫《騎着匹》에 보이는 稀貴語와 借用語에 대하여」, 『역학과 역학서』제3호, 역학서학회, 2012.
- 박재연·김아영, 「關於新發現的抄本漢語會話書洌雲文庫『中華正音』」, 『한중언어문화연구』33, 한국현대중국연구회, 2013.
- 박재연·周發祥, 『你呢貴姓·學淸』,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2.
- 박재연·최정혜, 「조선후기 중국어 회화서 <漢語>의 속담에 대하여」, 『어문논집』66, 민족어문학회, 2012.
- 서울대학교 규장각, 『譯語類解·譯語類解補』, 서울대학교규장각, 2005.
- 양오진, 『譯學書研究』, 박문사, 2010.

- 양오진, 「『노걸대』, 『박통사』에 보이는 속어의 표현에 대하여」, 『중국학논총』30, 2010.
- 유재원, 「『華音撮要』 중국어 성모 한글표음에 관한 고찰」, 『중국학연구』 69, 중국학연구회, 2014.
- 유은중, 『중한성어속담대사전』, 서울: 박이정, 2011.
- 육훈, 「中韓 양국의 속담 비교 연구」, 『새국어교육』54, 흥광훈, 「중국 현대 관용어의 양상과 형식미」, 『인문논총』28, 2014.
- 辭海編纂委員會, 『辭海』(1999年版普及本), 上海辭書出版社, 2002.
- 更科愼一, 「9世紀末朝鮮の北方漢語資料『華音撮要』の研究」, 『アジアの歴史と文化』9輯, アジア歴史・文化研究會, 2005.
-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漢語大詞典』(22冊), 漢語大詞典出版社, 2001.
- 馬思周姜光輝 編, 『東北方言詞典』, 吉林文史出版社, 1991.
- 任玉函, 『朝鮮後期漢語教科書語言研究』,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 蘇恩希, 「語學: 試論『你呢貴姓(學清)』的語料價值」, 『國際中國學研究』第7輯, 韓國中國學會, 2004.
- 汪維輝 遠藤光曉 朴在淵 竹越孝, 『朝鮮時代漢語教科書叢刊續編』, 中華書局, 2011.
- 溫端政 主編, 『中國諺語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2011.
- 溫端政 主編, 『中國俗語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 辭海版《中國俗語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1989/2011.
- 溫端政, 主編, 『中國歇後語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2011.
- 許少峰, 『近代漢語大詞典』(2冊), 中華書局, 2008.
- 岳輝, 『朝鮮時代漢語官話教科書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 翟建波 編著, 『俗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Newly Discovered Chinese Language Study Book 『Yiyuhixuan(譯語彙選)』 in the late Joseon Dynasty

Kim, Young

This study introduces the newly discovered Chinese language study book 『Yiyuhixuan(譯語彙選)』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and examines its material characteristics.

『Yiyuhixuan』 is 21cm wide and 31.3cm long. It is the old book of the late Kim Gwangju Kim family clan, currently owned by descendants. All 60 pages. Pages 1 through 16 are the contents of ‘Zhonghuazhengyin’, and pages 16 through 60 are transcribed with 『Yiyulejie-bu(譯語類解補)』.

The part that is intensively considered in this paper is the content of “junghwajeongeum”. There are few conversational sentences, and proverbs and idioms dominate. Proverbs and idioms have some similarities with the contents of 『Huayincuoyao(華音撮要)』 and 『Ninguixing(你呢貴姓)』. The vocabulary is widely distributed, such as relatives, bodies, food, clothing, plants, and objects, and most of them consist of two to four words. There are new and overlapping vocabularies, and many overlapping vocabularies have been copied from the vocabulary of 『Yiyulejie(譯語類解)』.

Currently, there are several types of Chinese conversation books in the late Joseon Dynasty with the same signature as “Zhonghuazhengyin”. However, this book is not a conversational Chinese book, but it contains proverbs and vocabulary so that you can study Chinese, so it seems that you used the signature “Zhonghuazhengyin”, which was used as a comprehensive and representative at the time. The newly introduced 『Yiyuhixuan』 would be a material showing one aspect of learning Chinese language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 words : Yiyuhixuan, Zhonghuazhengyin, the Late Dynasty, Chinese language study book, Proverbs, Idioms

투 고 일 : 2020. 10. 10. / 심 사 일 : 2020. 10. 15. ~ 2020. 11. 15. / 게재확정일 : 2020. 11. 20.